



미 증시, 테슬라&트위터 효과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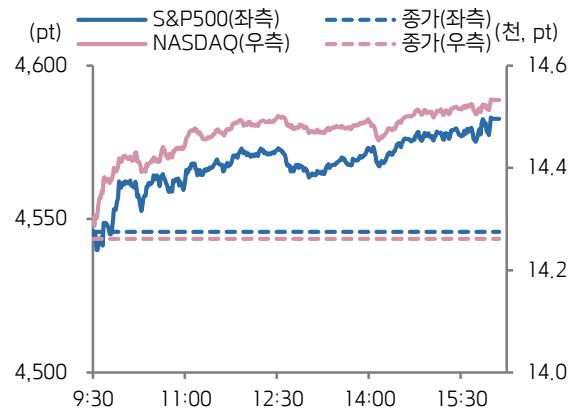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4일 (월) 미국 증시는 테슬라&트위터 효과 등에 따른 성장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SEC에 따르면 테슬라 CEO 머스크는 트위터(+27.1%)의 지분 9.2% 지분(약 29 억 달러)을 매수.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패시브 투자자인 머스크가 향후 액티브 투자자로의 활동을 전망하면서 트위터와 더불어 메타(+4.0%), 스냅(+5.2%) 펀트레스트(+10.4%) 등 기타 소셜플랫폼들의 주가 급등세 연출. 실제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창설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다”라고 언급. 보합권에서 출발한 S&P500 지수는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논의,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무소식, 미국 일드커브 역전 지속 등은 증시 부담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효과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고점에서 마감(다우 +0.3%, S&P500 +0.81%, 나스닥 +1.9%, 러셀 2000 +0.21%).

업종별로 경기소비재(+2.3%), 통신(+2.3%), IT(+1.9%)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유틸리티(-0.8%), 헬스케어(-0.7%), 금융(-0.5%) 등은 하락. 에너지 업종은 유가의 3%대 급등에 불구하고 0.1% 상승에 그쳤고, 금융은 일드커브 역전 지속으로 연일 하락. 전 거래일 1.8% 급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 반등, 다우 운송 지수는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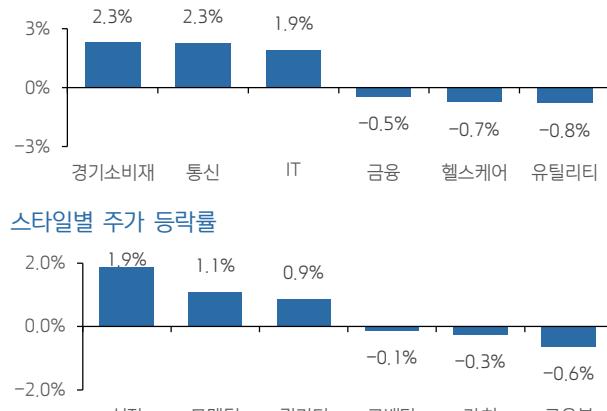
종목별로 애플(+2.4%), 아마존(+2.9%), 테슬라(+5.6%) 등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임. 테슬라(+5.6%)는 분기 최고 판매량을 기록(31 만 대 vs 예상치 31.2 만 대)하며 급등. JD.com(+7.7%), 알리바바(+6.6%), 텐센트 뮤직(+7.2%) 등 중국 ADR 주들은 중국 정부의 회계규정 개정 소식에 힘입어 급등. 차량 렌탈 기업 헤르츠(+10.7%)는 전기차 폴스타와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에 급등. 헤르츠는 향후 5년간 폴스타 차량 6.5만대를 구입하기로 함. 한편 스타벅스(-3.7%)는 인력 및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임시 중단한다는 소식에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82.64	+0.81%	USD/KRW	1,214.30	-0.1%
NASDAQ	14,532.55	+1.9%	달러 지수	99.00	+0.37%
다우	34,921.88	+0.3%	EUR/USD	1.10	-0.65%
VIX	18.52	-5.65%	USD/CNH	6.37	+0.08%
러셀 2000	2,095.44	+0.21%	USD/JPY	122.75	+0.19%
필라. 반도체	3,424.95	+1.7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500.96	-0.07%	국고채 3년	2.815	+3.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037	+3.2bp
Eurostoxx50	3,951.12	+0.83%	미국 국채 2년	2.420	-3.6bp
MSCI 전세계 지수	712.67	+0.16%	미국 국채 10년	2.406	+2.4bp
MSCI DM 지수	3,057.07	+0.1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45.85	+0.36%	WTI	103.61	+4.37%
MSCI 한국 ETF	72.03	+1.42%	금	1935.4	+0.6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7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5.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트위터, 테슬라 등 미국 성장주 급등이 국내 성장주들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2. 최근 들어 순매도세가 완화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변화 가능성

3.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1.7%)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 반등을 만들어낼 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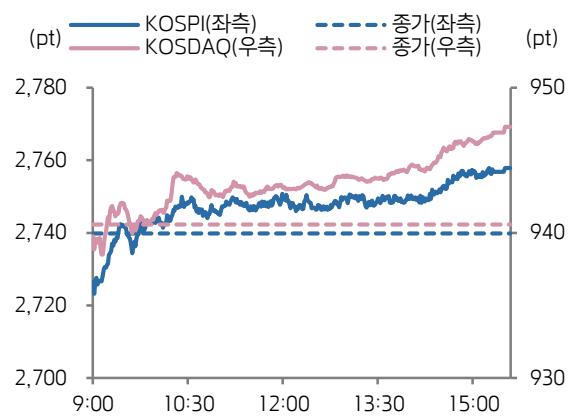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 월 중 한때 52 주 고점대비 약 20% 넘게 급락했던 나스닥은 현재 10% 미만대로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약세장(고점대비 20% 이상 하락)과 조정장(고점대비 10% 이상 하락)을 벗어난 상황. 이처럼 글로벌 대장 주식시장 역할을 하는 미국 증시가 빠르게 주가가 복원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신규 약재성 재료는 등장하지 않고 있으나, 10 년물과 2 년물의 금리차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 기존 불안요인들이 잠복해있는 것은 사실. 다만, 아직 10 년물과 3 개월 물 혹은 2 년 이하의 단기를 금리차는 확대 국면에 있으며, 고용이나 소비 등 실물 지표들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심리 측면에서도 접근해보면 시장의 전망이 특정 방향으로 지나친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 실제 가격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례가 존재. 마찬가지로 현재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주목하면서 침체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침체에 대한 공포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침체 논란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 등 위험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지만, 단기 차익실현 성격 이상의 과도한 매도 대응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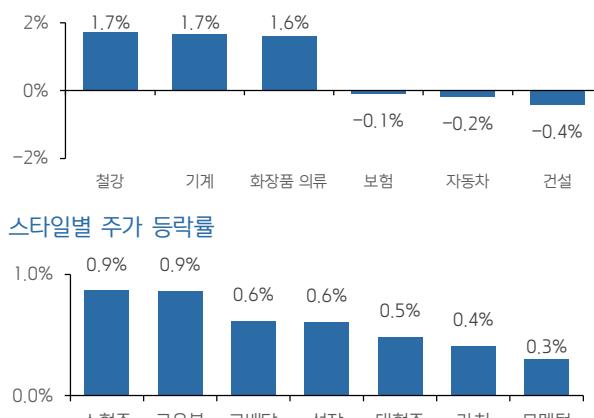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 플랫폼, 전기차 등 성장 스타일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전반적인 지수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은 가운데, 중소형주 or 특정 테마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 성격을 보였음.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 속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졌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장단기금리차 논란 등 매크로 민감도가 내려가거나, 주중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 LG 전자 등 주력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실적 시즌 기대감이 형성될 시에는 대형주들의 반등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p>Compliance Notice</p> <p>-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고지사항</p> <p>-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과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p>